

지구환경포럼 (가칭)

Global Environment Forum (GEF)

(가)국제환경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

Global Environment Forum

“ 인간과 해양환경” 2008년 6월 또는 7월 Ocean Castle, Taean, Korea

[포럼 추진 배경]

- 1960년부터 지구 환경문제가 국제적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,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인간의 모든 활동이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많은 환경 관련 규제들이 생겨남
-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양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특히 부각되고 있어,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관련 국제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폭시키는 기회로 활용
- 국제환경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이 해양환경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세계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디딤돌 마련
- 유엔환경계획(UNEP)의 아시아 태평양본부를 충남에 유치하여 태안을 지구촌 환경수도 및 글로벌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함.

[포럼의 목적]

- 세계의 해양환경 관련 이슈들의 교류의 장
-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저변 인식확산
- 충청남도가 세계 환경 컨벤션 중심지역으로의 발돋움
- 충남 태안을 중심으로 환경문화 및 교육도시 육성

[포럼의 운영]

- 포럼은 매년 6월 환경의 날(5일)에 개최하고, 주제를 그 시대나 미래에 대비해야 할 이슈를 중심으로 결정
(단 2008년 1회 대회는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기 조정 필요)
- 전문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, 청소년 등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션 및 이벤트 마련
- 미디어 파트너(신문, 방송)를 선정하여 포럼의 내용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사화 또는 방송중계
-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시관 마련 및 홍보기회 제공

[포럼의 단계별 전략]

- 1단계 (2008년)
 -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해양 오염에 관한 주제 선정
 - 대회 아이덴티티 및 기조를 세우고 타 환경포럼과 차별화
 - 국제환경문화재단과 충청남도의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
 - 충청남도 태안이 환경 컨벤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 마련
 -
- 2단계 (2009년 ~ 2010)
 - 매년 환경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을 주제로 선정
 - UNEP 아시아 본부 한국유치에 따른 아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
 - 포럼규모 확대 및 부대행사(전시, 이벤트) 연계
 - NGO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
- 3단계 (2011년 ~)
 - 포럼의 정착화 단계로 대형화 및 세계화 방안 모색
 - 아태 환경장관 회의 및 아태 환경협력 전시회 동시 개최

[포럼의 기대효과]

1. 개최 전부터 모든 매체를 통한 전국민의 관심이 서해안 특히 충남으로 집중
2. 국제환경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주관함으로써 국제환경문화재단 창립에 관한 홍보는 물론 재단의 기금조성에 도움
3. 안면도 오션캐슬에 포럼을 유치함으로써 <2009년 안면도 꽃 박람회>를 우회 홍보
4. 포럼개최 후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UNEP의 아시아태평양사무소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가 될 것임
5.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UN의 기구를 충남에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글로벌충남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 고취

Global Environment Forum 2008

[포럼의 운영]

- 대회 명: Global Environment Forum 2008
- 대회 주제: “인간과 해양환경”
- 일시: 2008년 6월 또는 7월 (2박 3일)
- 장소: 1안- 태안 오션캐슬, 2안 - 대전컨벤션센터
- 주최 및 주관기관: 충청남도, (가)국제환경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
- 규모: 초청연사 포함 약 200 ~ 300명
- 참석대상: UNEP관계자, 관련 산업계, 정부부처, 학계, 국내 연구기관, 일반대중과 청소년, NGO 등
- 행사구성: 기조연설, 특별연설, 분과세션

- 행사 일정 개요
 - 1일
18:00 ~ 20:00 환영리셉션 (초청연사 중심)
 - 2일
09:00 ~ 09:30 개회식 (개회사, 환영사, 축사)

10:30 ~ 12:30 기조연설
12:30 ~ 14:00 오찬
14:00 ~ 15:00 특별강연
15:00 ~ 18:00 분과세션 (동시에 2개 진행)
18:30 ~ 20:30 만찬 (충청남도 주최)

- 3일
 - 09:00 ~ 10:30 Plenary Session (전체 참석)
 - 10:30 ~ 12:30 분과세션 (동시에 2개 진행)
 - 12:30 ~ 13:30 오찬
 - 13:30 ~ 18:00 Technical Tour (유류유출 지역 또는 관련 기업)
 - 18:30 ~ 20:30 자원봉사인의 밤 개최

[초청 연사(안)]

UN

- 반기문 UN사무총장 -취임 이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, 방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음. 환경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안이며 UNEP와의 연계성으로 방한할 명분이 충분함
- 아킴슈타이너(Achim Steiner) UNEP사무총장
- 김재범 한국UNEP 한국위원회 사무총장
- UNEP 아태 사무소 관계자

해외 석학 (해양환경 분야의 전문가, 현재 협의 중)

정부

- VIP
- 각국의 환경부 장관 - 2008년에는 개도국 중심의 환경장관 초빙
- 환경부 장관
- 이완구 충청남도지사
- 국회 환경노동위원장
- 기타 정,재계 인사

기업인

- 이건희 회장 – 국제회의 석상에 연사로서 참여한 적이 한번도 없지만 태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
-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
- 김중곤 유한킴벌리 사장
- 현대제철 사장
- 기타 글로벌 친환경 기업 CEO 또는 임원진

[후원 모집 방안]

- 기업체
 - 유류유출 관련 기업 (삼성중공업)
 - 계룡건설(주), 경남기업(주), (주)한화, (주)웅진
 - 서해안 주요 기업 (현대제철 외)
 - 환경관심 기업
 - 유한킴벌리 –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
 - 태평양 – 태평양 그린운동
 - GS칼텍스, SK, 현대, 기아자동차 등
- 정부
 - 환경부
 - 국토해양부
 - 충청남도
- 후원기업 모집 전략
 - 행사관련 인쇄물 및 제작물에 기업체 홍보 기회 제공
 - 오·만찬 후원 시 해당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홍보 기회 제공
 - 기업세션 기회 제공 (후원기업이 하나의 세션을 환경이라는 주제 하에 별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)
 - 홍보부스 운영

<이상>